섬 주민 '햇빛연금'…전남 태양광사업 수익 쏠쏠

신안·해남·영암 지역, 폐염전 등 활용 발전소 본격 운영 2년째 수익
2021년 기준 22개 시·군 1만3885곳 가동…1275곳 사업 준비 중

섬마을 주민들이 폐염전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영암·신안지역 태양광 발전소가 본격 운영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2년째 발전 수익을 '햇빛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신안의 경우 안좌도(96㎿), 자라도(24㎿), 지도(100㎿), 사옥도(50㎿) 등 섬 4곳에서 태양광 발전이 운영중이다. 이들 섬 주민들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분기별로 발전 수익을 지급받고 있다.

안좌도의 경우 주민 2830명이 협동조합을 꾸려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난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발전 이익으로 29억원을 나눠가졌다. 발전소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2년 간 모두 8차례에 걸쳐 배당금을 받았는데, 분기마다 주민 1인당 12만~36만원씩 지역상품권으로 받았다. 연간 지급액은 주민 한 명당 48만~144만원에 이른다.

자라도 주민들이 받는 햇빛연금은 더 많다. 279명의 주민들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2년 간 지급받은 발전 이익은 모두 7억4000만원으로, 주민 1명 당 분기마다 17만~51만원씩 4차례에 걸쳐 받았다. 연간 지급액으로 보면 주민 1인 당 68만~204만원이나 된다.

주민들이 발전소 총사업비(550억원)의 4%인 17억6000만원(4%)을 조합 명의로 대출해 충당했지만, 발전 사업자가 발전시설·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비용도 책임지기에 조합이나 주민의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사옥도 주민들도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발전이익 8억6000만원을 4차례에 걸쳐 나눠 가졌다. 513명이 1인당 받은 배당금은 분기별로 22만~60만원에 달했다. 지도에서도 3512명의 주민들이 지난 2021년 11월부터 분기마다 11만~26만원씩 6차례에 걸쳐 지급받았다.

신안과 달리 영암 금정면 주민들은 금정면 문예체육진흥회로 두 차례 지급된 현금 4억원을 마을 발전에 사용하고 있다. 해남 기업도시 내 조성된 태양광 발전소도 16억원의 개발이익을 두 차례에 걸쳐 세대별(5개 마을 123세대)로 지급했다.

지난해 말 운영에 들어간 임자(100㎿·참여주민 3214명), 안좌2(192㎿·2830명) 태양광도 발전이 본격화되면 해당 주민들에게 햇빛 연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여기에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95㎿·2860세대 참여), 고흥호 수상태양광(83㎿·도덕면 25개 마을), 비금 태양광(200㎿·주민 3516명)도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민 이익 공유 방식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농·어촌에 불쑥 들어와 마을 경관을 해치면서 주민과의 소통에 소홀할 경우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주민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1만1275곳(5934㎿)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중이고 가동중인 곳도 22개 시·군 1만3885곳(3862㎿)에 이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진피해 튀르키예에 긴급구호대 3진 파견

이재민 임시 거주촌 조성 지원

정부가 강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에 조만간 긴급구호대 3진을 파견해 이재민 임시 거주촌 조성 사업을 지원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튀르키예 지진피해 관련 제3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모두발언에서 "3진 파견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계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이재민들에게 일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구호대 1진과 2진이 각각 생존자 수색, 이재민 구호사업 수요조사 및 구호물품 전달 임무를 수행했다며, 3진 파견을 통해 이뤄질 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 사업 지원은 임시 재해복구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존자 수색·구조에서부터 임시 재해 복구 단계까지 지원한 것은 우리 정부가 2007년 해외 긴급구호법을 제정해 구호대를 파견하기 시작한 이래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논의해 온 인도적 지원과 개발 의제 간 연결 성공 사례"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에 대한 강한 의지, 우리 국민의 뜨거운 온정,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계여성의 날' 금남로 거리행진 UN이 지정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광주전남여성대회가 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금남로에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전남, 3억 이상 소득 농가 625가구

한우·유기농 쌀·딸기 등 생산…1억 이상 6140호 역대 최다

전남에서 3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가 625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한우를 키우거나 유기농 쌀, 딸기, 파프리카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들 농가들의 성공 사례를 청년농, 귀농인에게 전파하고, 농민 현장 실습교육 강사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8일 "2022년 농어소득, 이전소득 등을 통해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가 역대 최다인 6140호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시설 원예 현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남도장터, 홈쇼핑을 활용한 온라인 판매 지원 등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경영 형태별로 축산이 2499호(4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식량작물 1933호(31.5%), 채소 907호(14.8%), 가공·유통 325호(5.3%), 과수 301호(4.9%), 화훼 등 기타 175호(2.9%) 순이었다. 축산 분야 연소득 1억원 이상 농가 증가 주요 원인은 한우 100마리 이상 사육농가 증가 및 사육 규모 확대 등이다.

소득 구간별 분포에선 1억~2억원 미만 농가가 4418호(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억~3억원 미만 887호(14.4%), 3억~5억원 미만 495호(8.1%) 순이었다. 10억원 이상 농가도 130호나 됐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물가, 경기침체 속에서도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가 6140호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스마트 농장 확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확대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 아열대 과수 등 고소득 작목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국민공모 통해 9월4일 선정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1차)하고,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했다. 후보 일자에 대한 최종 국민 투표(3차)를 거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정해졌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9448명이 참여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에는 3996명(42.3%)이 표를 던졌다. 10월 19일에는 1985명(21%), 7월 7일에는 1882명(19.9%)이 투표했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 맞는 계절'이라고 제안 의미를 더했다. /연합뉴스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 검사' 이번 주말부터 의무 해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하던 입국전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화 조치가 이번 주말부터 해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회의에서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남아있던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춘절 연휴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안정세를 지속하고, 국내외 중국에 대한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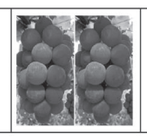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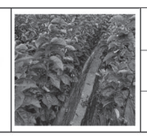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중국 주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월 4주 4047만5000명에서 2월 4주 7만7000명으로 줄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검사는 지난 1일 해제됐는데, 직전 사흘간(지난달 26~28일) 입국자 양성률은 0.7%로 낮았다.

질병관리청은 또 이날 회의에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 계획을 오는 5월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완전히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 각 부처가 준비해야 할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3 고소득 추천 묘목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시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포도		루비로망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 무게20g, 당도 18브리스 이상)
감		감풍, 원추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태추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슈퍼대봉	대봉중에 맛이 뛰어나 식재를 많이 합니다.
엄나무		민엄나무 가시없는 엄나무	가시 없는 민엄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호두		신품종 호두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꽉 차면서 가피가 얇아 손으로도 잘 부서집니다.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절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갑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땅 상담해드립니다.

갑을농원 묘목상담 : 010-3121-7676 문의전화 :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25 · 농협 312-3121-7676-91 (예금주:정준화)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2차)

본 회사는 2023년 02월 0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02월 28일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3월 9일
농업회사법인 송도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9, 201호 (농성동, 거송빌딩)
청산인 김 명 군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진의학(760201-XXXXXXX)
• **최후주소** : 광주 광산구 선운중앙로67번길 9, 308호(선암동)

피상속인 망 진의학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느단103호로 신청하여 2023년 2월 2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3월 9일
• **상속인** : 최말순(481205-XXXXXXX) 목포시 영산로 676-7, 102동 307호 (석현동, 현대아파트)
• **신고기간** : 2023. 3. 9. ~ 2023. 5. 19.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최말순의 주소

책임제한절차개시공고(1차)

이 법원 2022책2호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 2. 14. 16:00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한다.

다 음

1. 사건번호 및 사건명칭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책2호 선박책임제한
2. 가. 신청인 : 주식회사 금오해운 (206211-0046306)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9길 4
대표이사 한인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나. **제한채권자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다. **수익채무자 :**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주문 : 별지 1. 기재 선박의 별지 2. 기재 사고로부터 발생한 물적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한다.
4. 관리인 : 변호사 이용주[1976. 9. 14.생, 사무실 주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2. 2층(성내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5. 책임한도액 : 83,000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6.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및 장소 : 2023. 4. 14. 14:00까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종합민원실 신청계
7. 제한채권의 조사기일 : 2023. 5. 10. 17:0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 법정
8. 주의사항
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대한 제한물권(물적손해에 관한 채권)이 있는 자는 그 채권을 제6항 기재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외국의 제한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023. 2. 14. 16:0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
재판장 : 판사 **조현호** 판사 **김경준** 판사 **원도연**

별지 1
선박의 표시
• 선박의 종류와 명칭 : 기선, 하준티-1호
• 선적항 : 전라남도 완도군
• 선질 : 강
• 총톤수 : 106톤
• 기관의 종류와 수 : 디젤기관 2대
• 추진기의 종류와 수 : 나선추진기 2대
• 진수연월일 : 1968. 12. 1. 끝.

별지 2
사고의 표시
• 사고 일시 : 2021. 8. 2. 08:45경
• 사고 장소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로 소재 진도대교 해상
• 사고 내용 :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1 기재 선박이 부선 '사랑 33호'를 예인하면서 항해하던 중 사랑 33호의 스퍼드가 진도대교의 교량 상판 하단부를 마찰하였고, 그 결과 진도대교의 강판이 파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음. 끝.

별지 3
수익채무자 목록
• 신수용 : 부산 사하구 감천로 24, 103동 1212호(감천동, 감천우림1차아파트)
• 한국해운조합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9 (등촌동, 한국해운조합사옥)
대표자 이사장 임병규

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1.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카이보성에너지 주식회사
2. 사업명칭 : 카이보성에너지발전소
3. 발전소 위치 : 대한다원 일원(봉산리/옥암리, 웅치면 봉산리/유산리, 회천면 영천리)
4. 발전사업설비용량 : 89MW
5. 사업개시예정일 : 2028년 6월
6. 사업운영기간 : 준공 후 20년
7. 의견제출 기간 : 2023. 03. 09. ~ 2023. 03. 22.
8. 연락처 : 062 673 7729

2023년 3월 9일
카이보성에너지주식회사
대표 장 우 진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당 재단법인은 2023. 3. 6. 재단 이사회에서 관련법률(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정관 제41조에 따라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단법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관련법률에 따른 사후활용주체(여수광양항만공사)에게 승계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해산절차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내에 민법 제89조에 따라 채권신고 및 이의를 제출하기 바라오며, 위 공고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채권액은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재단법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1(덕충동)
대표청산인 강 용 주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2023년 3월 8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제화학 주식회사(이하"갑")은 주식회사 케이투알파트너스(이하"을")를 흡수합병하여 "을"의 권리의무일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갑" **인제화학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122-12
대표이사 구 창 일
"을" **주식회사 케이투알파트너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1길 33, 506호 (반송동, 동탄미래도프라자)
사내이사 박 인 철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정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